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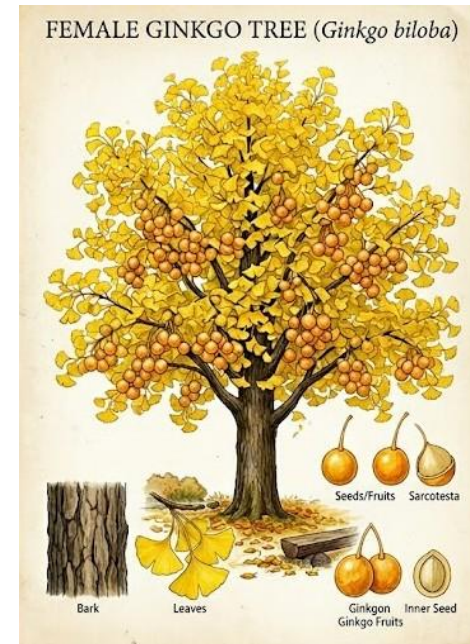
# 이야기가 있는 文學風景

萬事感謝



# 麥波文學

## 雌雄異株 - 雌雄同株



### CAFE 情談

- [상생과 조화의 중요성]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있으며, 적절한 파트너나 조력자를 만났을 때 완전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 [만남의 인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자신과 뜻이 맞거나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그 가치가 발현될 수 있다.
- [겸손과 현실 인식]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보다, 주변의 환경과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일깨워준다.



# 散文的 自由 自然主義的 글쓰기



## 隨筆 文章의 特徵

순서	수필의 형식	관련 내용
1	무형식의 형식	일상, 경험, 생각, 감정이 자유롭게 펼쳐지지만 글 전체가 하나의 <b>유기적인 덩어리</b> 로 완성된다.
2	무질서의 질서	주제와 중심 생각이 흐름을 이끌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b>통일감</b> 을 이룬다.
3	무기교의 기교	화려한 수사나 기교보다 <b>진솔한 표현</b> 이 더 큰 감동을 주며 평범한 말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 CAFE 情談

- 수필의 특징: 수필은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만의 언어와 감성으로 세상을 그려내는 문학.
  - ① 무형식의 형식: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쓰는 것이 형식이다.
  - ② 무질서의 질서: 겉으로는 흩어져 보여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다.
  - ③ 무기교의 기교: 의도하지 않은 듯 쓰지만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진짜 기교이다.

## 무형식의 형식



### CAFE 情談

- [그림 설명] 이미지 속 왼쪽의 사람은 살아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는 수필에서 독자가 처음 만나는 부분과 같다. 작가의 추억, 감상, 체험, 사색이 자유롭게 펼쳐지면서 글은 마치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독자는 형식을 의식하기보다 글의 분위기와 정서에 먼저 이끌린다.
- 오른쪽 이미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뼈대를 보여 준다. 뼈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이다. 머리뼈가 머리를 받치고, 척추가 몸의 중심을 세우며, 갈비뼈가 심장과 폐를 보호한다. 만약 뼈가 없다면 사람의 몸은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

## 무질서의 질서



### CAFE 情談

- [그림 설명] 수십 만 마리의 새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거대한 물결과 형상을 이루며 움직인다. 개별적으로는 무질서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놀라운 질서를 이룬다. 수필 또한 여러 생각과 기억이 자유롭게 흩어져 있는 듯하지만, 글 전체는 하나의 정서와 의미를 향해 조화롭게 흐른다.

## 무기교의 기교 - 大巧若拙



순서	달항아리의 특징	문장에서 무기교의 기교
1	좌우가 약간 다르다	쉽고 자연스럽다 읽을수록 깊이가 느껴진다
2	표면이 미세하게 울퉁불퉁하다	꾸밈이 적다 여백이 있다
3	중심이 조금 비껴 있는 경우가 많다	진실한 체험이 담겨 있다

### CAFE 情談

[달항아리] ① 기술적으로 보면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② 달항아리가 흠으로 쓴 수필이라면, 수필은 말과 글로 빛은 달항아리이다. ③ 둘 다 화려함보다 자연스러움을, 완벽함보다 진실함을 추구하는 예술이며, 그 핵심이 바로 무기교의 기교이다.



# 人間 內面의 움직임과 틈새의 美學

- 우리에게 生老病死는 -

## 生老病死



### CAFE 情談

- 환자 보호자로 대학병원에 간 적이 있다. 암병동의 복도는 삶과 죽음이 팽팽하게 맞닿은 숨결로 가득했다. 절망이 번진 눈물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몸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 길목, 진료실 문을 나서며 가까스로 안도의 미소를 지어 보이는 이들만이 잠시 가쁜 호흡을 가라앉힐 뿐이다.

\_장석영의 「생로병사」 중에서

## 生老病死\_장자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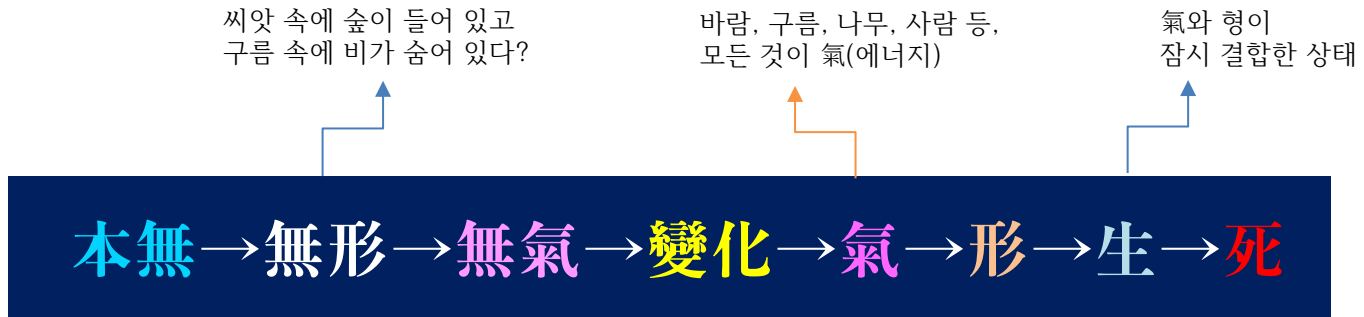


\_ 장자 2편 「지복유」

### CAFE 情談

- [뜻] 인생은 천지 사이에 잠시 머무는 것으로, 마치 흰 망아지가 문틈을 스쳐 지나가듯 한순간일 뿐이다

## 生老病死 [生] - 장자의 우주론과 존재론



본무 → 무형 → 무기 → 변화 → 기 → 형 → 생 → 사  
\_ 장자 2편 「제물론」

### CAFE 情談

- 人之生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사람의 삶은 기가 모인 것이다. 기가 모이면 삶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_ 장자 18편 「지락」
- 方生方死 方死方生-막 생겨남이 있으면 곧 죽어감이 있고, 막 죽어감이 있으면 곧 생겨남이 있다. \_ 장자 2편 「제물론」

## 生老病死 [老]



쓸모 없는 거목의 편안함

### CAFE 情談

- 재목이 되지 못해 도끼를 피한 늙은 나무가 숲의 한가운데서 아무런 구속 없이 거대한 그늘을 드리우듯, 인간 역시 노년의 비움 속에서 비로소 참된 정신의 소요를 누리게 된다. 늙음은 그렇게, 삶의 화려한 외피를 벗겨내고 영혼의 가장 눈부신 알몸을 만나는 위대한 자연의 예술이다.

\_장석영의 「생로병사」 중에서

## 生老病死 [病]



\_\_병이란 오만한 이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형벌

## CAFE 情談

- 우주의 거대한 가마솥 안에서 씬 없이 구르는 음양의 열기는, 생생과 노老라는 완만한 지형을 지나 마침내 병들희이라는 가파르고 현실적인 고통의 계곡에 당도한다.
- 인간에게 병이란 육체에 새겨지는 가장 생생한 비명이자 오만한 이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형벌과 같다. 장석영의 「생로병사」 중에서

## 生老病死 [死]



\_ Elisabeth Kübler-Ross [죽음의 5단계]

### CAFE 情談

- [죽음의 5단계]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제시한 죽음의 5단계는 인간이 치명적인 질병, 상실, 혹은 거스를 수 없는 큰 슬픔을 마주했을 때 겪게 되는 보편적인 심리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 生老病死 [死]



1단계 : 부정

### CAFE 情談

- [1단계-부정] 자신에게 닥친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초기 반응. 이는 감당하기 힘든 큰 충격으로부터 스스로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이다.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믿으며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거나, 현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生老病死 [死]



2단계 : 분노

### CAFE 情談

- [2단계-분노] 현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면, 억눌렸던 감정이 격렬한 분노로 폭발한다. 이 분노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에서 비롯되며, 특별한 원인 없이 주변 가족, 의료진, 신(God),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 生老病死 [死]



3단계 : 타협

### CAFE 情談

- [3단계-타협] 분노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상황을 유예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단계. 주로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 혹은 의료진에게 기도를 하거나 다짐을 하며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이번 해까지만처럼 시간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죄책감이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 生老病死 [死]



4단계 : 우울

### CAFE 情談

- [4단계-우울] 타협도 통하지 않고 현실적인 증상이 악화되거나 상실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직시할 때 찾아오는 극심한 무력감과 슬픔. 모든 희망을 잃고 극도로 말수가 적어지며, 눈물을 흘리거나 주변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고립되기를 자처한다. 이는 다가올 이별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다.

## 生老病死 [死]



### CAFE 情談

### 5단계 : 수용

- [5단계-수용] 긴 투쟁과 감정의 폭풍을 거치고 마침내 자신의 운명이나 상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지막 단계. 기쁨이나 슬픔 같은 격렬한 감정의 동요가 가라앉고,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에 도달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주변을 정리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조용히 마지막 시간을 나누며 삶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게 된다.
- 퀴블러 로스는 훗날 이 모델이 비단 죽음 뿐만 아니라 실직, 실연, 사업 실패, 소중한 이와 이별 등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거대한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수용으로 가기 위해선 앞선 분노와 우울의 터널을 충분히 거쳐야 하므로, 이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감정을 누르게 하기보다 그 슬픔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 해님이에서 해돋이까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 어제저녁은 왠지 잠이 쉽게 들지 않아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암송하다 잠이 들었다. ‘운명은 재천이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분지복分之福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각종 종교 서적, 철학자, 선배들은 죽음에 대하여 순수하게 받아들이라고 하였다. 대종사님께서도 죽음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이치와 같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으며 대종사님 모친이 병이 깊었을 때도 사람의 명은 하늘에서 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내가 생각해도 생사의 이치는 순리 자연의 도리에 맞는 취지이며,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신념이 확실하게 서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달았으니 죽음에 대하여 크게 두려운 것이 없다. 다만 그 많은 세상에 정이 들고 희로애락을 같이 해온 사람들 잊을 수가 없어서 착심을 떼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은 아니 갈 수가 없는 일이니 누가 그 길을 막으리오. 내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려운 책장에 병을 주어 데려가려고 하니 내 어찌 거역하리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이에게 감사를 올리고 또 감사를 올리며 특히 내 자녀로 와서 태어난 3남매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다. 사랑하는 나의 당신, 전생의 인연 깊어 부부 연을 맺고 사랑을 주고받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열심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나를 도와준 당신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또 해도 끝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삼 남매 그리고 당신, 고마워. 다음 생 어디에선가는 또 만날 것이야. 그때는 알는지 모를는지, 어디서 본 것 같은 만남이 되겠지. 고마워 · 미안해 · 감사해 · 사랑해.”



THE END

Closeing Ment